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4면
29일 '전주비보이그랑프리' 무관중 개최

전주매일

2021년 5월 7일 금요일 (음 3월 26일) 제277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방역·경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고른 소비활동을 위한 전 도민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등 도, 추경안 도의회 제출 도비로 100% 전액 지원

송하진 도지사(가운데)는 6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전 도민에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전북도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방역과 경제의 상생적 공존만이 도민의 일상생활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판단, 전액 도비를 활용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6일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브리핑을 통해 "지원방식에 대해 많은 논의와 숙고를 거쳤다"고 밝히며 "기본적으로 선별지원의 의미와 효과를 전제하면서 그간 수차례 선별적으로 지원해왔기 때문에 한번쯤은 도민 모두를 아우르는 고른 소비활동이 민생회복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편 지원을 결정했다"고 지원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작년 5월 정부에서 지원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지원시 전북도 카드매출액이 전월대비 18% 상승한 사례를 설명하고, 이번 지원시 생산유발 효과는 지원액의 약 1.8배인 3,263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히며, 사각지대 해소와 경제공존을 위한 어려운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송 지사는 이번 재난지원금이 목표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추진, 공정한 지급, 편리한 이용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히며, 도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도 함께 당부했다.

아울러, 송 지사는 "이번 지원금은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와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일부업소를 제외한 해당 시·군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경제효과 유발, 시·군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 전액 도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안)에 따르면, 지급기준일을 조례공포 이후 확정하고, 해당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도민에게 1인 1카드(선불카드)를 지원한다.

또한,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에서 신청·교부하며, 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은 대리수령이 가능하다.

아울러, 요양병원 및 취약세대(독거노인 등)는 방문 교부하며, 혼선방지를 위해 요일별 배부(출생연도 끝자리 : 1, 6 → 월 / 2, 7 → 화 / 3, 8 → 수 / 4, 9 → 목 / 5, 0 → 금)할 방침이다.

지원된 선불카드는 6월 말에서 9월 말(3개월)까지 사용해야 하며, 주소지 관할 시·군내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유흥업소 및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공과금 등에는 활용이 불가하다.

한편, 전북도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5,616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상황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 맞춰 민생안정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포스트코로나 대비 3대핵심정책 및 도민 생활안전 등 도정 주요시책도 다수 반영해 지역경제에 최대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오는 13일 예산안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23일까지 도의회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 지역정착 지원' 확대를 위한 11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1회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사전에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오는 24일 도의회 예산안 의결 즉시 현장 집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미얀마 유학생들에 생활방역 일자리 제공

전주시, 7월 말까지

전주시가 미얀마 현지 은행의 외화 송금 제한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유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성적과 어학 능력 등 국내 취업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미얀마 유학생 13명을 대상으로 희망근로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미얀마 국내 정세 악화에 따른 외화 송금 제한 등으로 학업 지속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미얀마 유학생들을 돕기 위한 조치다.

도서관 등 공공시설 배치 평일 학업시간 감안 주말 이용 1일 6시간씩

미얀마 유학생들은 도서관과 한옥마을 등 공공시설에 배치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는 등 생활방역 업무를 맡게 된다.

평일 학업 시간을 감안, 주말을 이용해 1일 6시간씩 근무하게 되며, 임금은 시급 8,720원(2021년 최저시급)과 부대경비 5000원, 공휴일 유급수당이 지급된다.

시는 미얀마인 거점공간과 티셔츠 판매 장소 등도 지원한다.

거점공간으로는 미얀마 유학생들을 비롯한 지원 단체들이 미얀마 현지상황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일부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미얀마 민주화지지 전주연대가 오는 21일 여는 미얀마 전통 음식 판매 바자회 장소로 시청 앞 노송광장을 제공하는 한편 시·구청과 한옥마을, 동물원 등에서도 티셔츠를 판매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다. 전주시청 공무원들은 자발적으로 바자회에 참여하고 티셔츠를 구매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권 독자노선 전무"… 국가철도망 구축 반영 건의

송 지사, 청와대 찾아 전주-김천 철도·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등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6일 청와대를 방문해 SOC 국가중장기종합계획에 대한 도내 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송 지사는 이날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이 추진하는 4개 사업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지사는 "경제성 논리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에 SOC 사업을 집중 투자하는 것은 전북 등 소외 지역의 개발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SOC 국가중장기종합계획 반영은 국민 대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인 미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송 지사는 "전북은 전북권 독자노선이 전무한 상황으로, 동서 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가 검토 대상사업으로 반영된 전주~김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대구~광주, 새만금~목포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중점추진사업 반영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은 광역교통 기본계획 미포함 지역으로, 대도시권및 대도시권 인접 시·군과 달리 기반시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이와 함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도 전북도 건의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고속도로 소외 지역 접근성 개선 및 이동거리 단축,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전주~무주간 노선의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이 절실함을 설명했다.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시 전북도의 열악한 도로환경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등을 감안해 노을대교 등 검토 대상 20개 구간을 선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송 지사는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의 교통시설 지원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북 등 강소도시권을 위한 별도 특별법안 마련을 건의했다.

그는 "전북은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등의 교통생활권의 인구가 울산권 광주권과 유사한 100만명 이상을 형성하고 있으나, 광역시가 없어 광역교통법에 의한 교통시설 지원에서 소외돼 온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지역간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지사의 이번 방문은 지난 3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과 안일환 경제수석 면담 이후, 두 번째로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지역 현안사업 해결 및 국가예산 확보 등 총력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 /유호상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